

# A Survey of Radiologic Science Students' Awareness and Educational Needs of Forensic Medicine

Kyeong-Hwan Jeong<sup>1</sup>, Sang-Hyun Han<sup>2,\*</sup>

<sup>1</sup>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Daegu Health College

<sup>2</sup>Department of Radiologic Technology, Daewon University College

Received: November 14, 2023. Revised: November 25, 2023. Accepted: November 30, 2023.

## ABSTR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economy and science, the people's standard of living has increased. Accordingly, we w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other words, we guarantee human rights and pursu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Therefore, the medical field extends human life and helps maintain a healthy life. The social medicine that protects human rights is forensic medicine. Forensic medicine identifies deaths and analyzes the cause using forensic radiology images. Forensic radiology is the acquisition and provision of medical images by the radiographer. Therefore, the radiographer must have expertise by completing forensic science-related courses. Recently, medical and nursing schools have opened and operated various subjects such as forensic medicine and forensic nursing. However, the Department of Radiology science is the only school that offers courses related to forensic science. For the future development and exploration of the radiographer and department of radiology science, forensic education should be considered. For this purpose, we investigated the necessity and demand for forensic education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y science undergraduate and graduate schools. The department of radiology science students' awareness of forensic science was found to be 2.977 points, but the need for forensic science education for the radiographer was high at 3.759 points. In addition, current students' demand for forensic science courses was high at 84.1%, with the majority responding that it was necessary to open and operate the course. This study was able to determine the demand for forensic science-related subjects among the department of radiology science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and there is a need to explore diversity and expertise in education. We hope that it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forensic medicine and radiology science.

Keyword: Medicine, Radiology Education, Radiographer, Department of Radiology Science Student

## I. INTRODUCTION

현대국가는 경제, 과학, 사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의학 분야는 지난 10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으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삶의 질과 기대수명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혁신적 의료기술 개발로 광범위한 검사 및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sup>1,2</sup>. 국가 경제의 선진화는 정치적 안정으로 인하여 인권 향

상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시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sup>3,4</sup>. 법의학은 범죄 및 사고에 의한 죽음뿐만 아니라 질병 및 손상에 의한 사인을 규명하여 국민의 건강 및 의과학적 발전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며,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의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감정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독립된 학문이다<sup>5,6</sup>. 법의학은 의학의 모든 분야와 관련이 있으며, 미국 법의과학회는 법의학

\* Corresponding Author: Sang-Hyun, Han

E-mail: luck2han@daewon.ac.kr

Tel: +82-+82-43-649-3302

사선학, 법의인류학, 법의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 연구 발표하고 있다<sup>[7,8]</sup>.

법의학의 필요성을 인식한 해외 국가는 40년 전부터 전문 교육기관을 개설하였고, 국내 의과대학은 40개 대학에서 11개의 법의학 교실이 개설되어 있다. 법의학 교과목은 21개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독립과목으로 개설되어 대부분 1학점 16시간 정도 이론 강의를 하고 있으며, 실습은 협력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국가는 법의간호학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국내는 2003년도에 최초로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법의간호학과를 개설하였다. 또한, 국내 일부 간호대학에서 법의간호학 교과목을 운영 중이며, 2012년도에 대한법의간호학회를 개설하였다<sup>[9,10]</sup>. 세계적으로 법의학 및 법의간호학과 비해 법의방사선학의 발전은 뒤쳐져 있는 상황이며, 국내 방사선학과 및 대학원 과정에 법의학 및 법의방사선학 교과목이 개설된 곳은 없었다. 하지만 2023년 1학기 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에서 전공 심화 과정으로 2학점 32시간 법의방사선학 강의를 개설 운영 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몇몇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의학, 법과학 등의 학과가 개설되어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는 국내 법의과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방사선학과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중 법의학 관련된 교과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분석해야 한다.

최근에는 방사선학을 이용한 다양한 사후 분석 및 법의학적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대학에서의 법의방사선학의 필요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법의방사선학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법의학 교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방사선학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에게 법의학 교육 및 법의방사선학의 교육하여 법의방사선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방사선학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대상으로 법의학의 인식도를 알아보고, 설문 조사를 통하여 법의학의 교육요구도를 통계 분석하였다. 따라서,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방사선학과 및 대학원의 법의학 가이드라인 수립과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MATERIAL AND METHODS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방사선학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의학 인식도 및 교육요구도 조사한 연구이다. 설문지 문항은 문헌 고찰을 통해 연구자들이 개발하였으며, 방사선학과 교육 경력 10년 이상의 교수 2인, 법의학 전공자 2인에게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설문지는 연구 목적 설명 및 설문동의 1 문항, 인식도 10문항, 관심도 7문항, 교육 실태 및 요구도 13문항, 일반적 특성 9문항으로 총 5분야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DUC-2023-05-001-01)을 받았으며, 전국 방사선학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중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로 하였다. 최소 연구 대상자는, 중간크기 0.2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으로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명이 산출되었다. 전국 방사선학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중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분야 1은 본 연구의 목적 설명과 연구 참여의 동의서가 포함되었으며, 분야 2는 법의학 존재와 인식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분야 3은 법의학 지식 및 관련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야 4는 현재 대학 및 대학원의 법의학 교육 실태 및 시수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분야 5는 일반적 특성 문항으로 나이, 성별, 학년, 평점, 면허 취득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 대상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자료수집은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방사선학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에게 구글 온라인으로 배포하였으며, 연구 목적 등에 관해 설명하고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221명이었으나, 결측 1명으로 최종 220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software package SPSS(IBM Ver. 26,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인식, 관심, 교육 실태 및 요구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III. RESULT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성별 분포는 ‘남성’ 104명(47.3%), ‘여성’ 116명(52.7%)이고, 나이는 ‘23세’가 34명(15.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은 ‘1학년’ 58명(26.4%), ‘2학년’ 54명(24.5), ‘3학년’ 57명(25.9%), ‘4학년’은 33명(15.0%)으로 나타났다. 대학 및 대학원의 성적 평점 ‘3.0~4.0’은 130명(59.1%)으로 가장 많았으며, ‘3.0 미만’ 26명(11.8%)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N=220)

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Male	104	47.3
	Female	116	52.7
	≤ 19	38	17.3
Age	20 ~ 25	148	67.2
	26 ~ 30	20	9.1
	≥ 31	14	6.7
	Freshman	58	26.4
	Sopphomre	54	24.5
Year	Junior	57	25.9
	Senior	33	15.0
	Master's course	4	1.8
	Doctorrate course	13	5.9
	ETC	1	0.5
Grade	≤ 2.9	26	11.8
	3.0 ~ 4.0	130	59.1
	≥ 4.1	64	29.1

방사선학과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높은 취업률’ 72명(32.7%), ‘지인 추천’ 72명(32.7%)으로 나타났다.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motivation for the decision to enter the radiology science department (N=220)

Item	n	%
Feel its great appeal through personal experience	1	0.5
Because of high school grades	15	6.8
High salary	1	0.5
High employment rate	72	32.7
Health field	1	0.5
Radiology Department Promotion	5	2.3
The work of radiologists in hospitals seems comfortable	22	10.0
Find out for yourself	1	0.5
By chance	1	0.5
Aptitude consideration	29	13.2
Recommend by acquaintances (family, teachers, etc.)	72	32.7

#### 2. 방사선학 전공자의 법의학에 대한 인식

법의학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인식도는 Table 3과 같이 5점 만점 중에 2.977±1.363점이었고, ‘알고 있다’ 77명(3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몰랐다’ 46명(20.9%)으로 나타났다.

Table 3. Survey on awareness of the existence of forensic medicine (N=220)

Item	Category	n	%	Mean±SD
The existence of forensic medicine	Superior knowlege	26	11.8	2.977±1.363
	Adequate knowlege	77	35.0	
	Basic Knowlege	29	13.2	
	Minimal Knowlege	42	19.1	
	No knowlege	46	20.9	

법의학의 존재 여부를 알게 된 계기는 Table 4와 같이 ‘영화 또는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111명(50.5%)이었고, ‘수업을 통해 알게 된 동기’는 2명(1.0%)에 불과하였다. ‘기타’는 43명(19.3%)이었고, 대부분 법의학 존재를 몰라서 기타로 응답하였다. 드라마 또는 영화를 통한 법의학 인식이 높아 과학수사 드라마 또는 영화를 얼마나 자주 시청하는 문항에서는 3년 평균 ‘연 1회’ 109명(49.5%)이었고, ‘매일 시청’은 5명(2.3%)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motivation for knowing about forensic science and number of times watched CSI movies or dramas (N=220)

Item	Category	n	%
What motivated you to know about forensic medicine	Youtube	2	1.0
	School classes	2	1.0
	Drama or movie	112	51.0
	People around	19	8.6
	Direct experience	5	2.3
	Career exploration class	1	0.5
	Book	21	9.5
	Search	16	7.3
	etc	42	18.8
	How often do you watch CSI movies or dramas? (Please enter the average number of times over the past three years.)	Everyday	5
Once a week		15	6.8
Once a month		37	16.8
Once a year		109	49.5
Not watching at all		54	24.5

과학수사 영화 또는 드라마 시청 전 법의학 인식도는 2.462±1.268점이었고, ‘전혀 몰랐다’는 55명(25.0%)이며, ‘잘 알고 있다’는 11명(5.0%)으로 나타났다. Table 5와 같다. 시청 후 법의학 관심도에 대한 문항은 3.254±1.174점이었고 ‘그렇다’ 58명(26.4%)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4명(6.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6과 같다.

Table 5. Survey on awareness of the existence of forensic science and number of times watched CSI movies or dramas (N=220)

Item	Category	n	%	Mean±SD
Did you know anything about forensics before watching the CSI drama or movie?	Superior knowlege	11	5.0	2.462±1.268
	Adequate knowlege	39	17.7	
	Basic Knowlege	31	14.1	
	Minimal Knowlege	52	23.6	
	No knowlege	55	25.0	

Table 6. Survey on interest in forensic science after watching CSI drama or movie (N=220)

Item	Category	n	%	Mean ± SD
Do you know anything about forensics before watching the CSI drama or movie?	Strongly Agree	27	12.3	3.254±1.174
	Agree	58	26.4	
	Neither Agree nor Disagree	44	20.0	
	Disagree	38	17.3	
	Strongly Disagree	14	6.4	

### 3. 방사선학 전공자의 법의학 교육 요구도

방사선사가 법의학 기초지식 필요성에 대한 문항은 3.759±1.007점이었고, ‘그렇다’ 86명(3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7명(3.2%)으로 나타났다. Table 7과 같다.

Table 7. Survey on the need for basic forensic knowledge among radiology students (N=220)

Item	Category	n	%	Mean±SD
Do you think radiographer need basic knowledge of forensic science?	Strongly Agree	55	25.0	3.759±1.007
	Agree	86	39.1	
	Neither Agree nor Disagree	57	25.9	
	Disagree	15	6.0	
	Strongly Disagree	7	3.2	

Table 8. Survey on the forensic medicine education needs students of radiology science department (N=220)

Item	Category	n	%
Existence of Forensic medicine Curriculum	Yes	18	8.2
	No	202	91.8
Forensic medicine education needs	Agree	185	84.1
	Disagree	30	13.6
	etc	5	2.3
Lecture time requirements	1 hour/week	83	37.7
	2 hour/week	105	47.7
	3 hour/week	19	8.6
	4 hour/week	5	2.3
	Not thinking	8	3.7
Special lecture requirements	Agree	147	66.8
	Disagree	11	5.0
	Not thinking	62	28.2
Special lecture time requirements	Less than 1 hour	32	14.5
	Less than 2 hour	121	55.0
	Less than 3 hour	50	22.7
	More than 3 hours	14	6.4
	Not thinking	3	1.4

법의학 교육과정의 존재 여부에서는 ‘있다’가 18명(8.2%)이며, ‘없다’가 202(91.8%)였다. 법의학 교과목 개설 요구도는 ‘찬성’이 185명(84.1%)이며, ‘반대’는 30명(13.6%)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5명(2.3%)이었고, 기타 내용은 ‘범의방사선학과 교육과정에 포함, 모르겠다, 상관없다, 특강 및 법의학 정의를 수강하는 기회, 잘 모르겠다’가 각각 1명씩 응

답하였다. 법의학 개설 요구 시수는 '2시수/주' 105명(47.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시수/주' 83명(37.3%)로 나타났다. 특강 개설은 '찬성' 147명(66.8%)이며, '반대' 11명(5.0%)으로 나타났으며, '모르겠음' 62명(28.2%)으로 응답하였다. 법의학 특강 요구 시수는 '2시간 미만'이 121명(5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시간 미만'이 50명(22.7%)으로 나타났다(Table 8).

#### IV. DISCUSSION

방사선사 양성 교육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연구자가 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대학 교육이 일반화되고 있다<sup>[11]</sup>. 전문화, 과학화 세분화에 따라 변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높은 수준의 방사선사와 전문화된 방사선사의 역할 필요하다. 따라서 법의학의 교육은 필수적이다<sup>[12]</sup>.

방사선학과 재학생들의 입학 동기는 높은 취업을 선택하였다. 높은 취업을 위해서는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를 세분화 및 전문화해야 한다. 따라서 법의학과 관련된 전문 교과목을 이수하면 수준 높은 전문방사선사를 양성할 수 있다. 또한, 과학화 및 첨단화되는 의료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에는 최신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법의학 및 과학수사 적용에 관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sup>[13-15]</sup>.

재학생들의 법의학 인식도는 2.977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법의학은 과학수사 영화 또는 드라마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교육에 의한 인식은 거의 없었다. 또한, 과학수사 영화 또는 드라마 시청률은 일 년에 한 번 정도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법의학 시청 후 관심도가 높아짐을 알 수가 있었다. 하지만, 영화와 드라마는 과장성과 허구성을 많이 내포하여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어 대학에서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 방사선학과 학부 및 대학원에 법의학과 관련된 교과목 개설 비율은 8.2%로 낮게 나타났지만, 법의학 지식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3.759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규 교과목 개설 요구도는 84.1%

로 높게 나타났다. 신규 교육과정 개설은 합리적이며 계획되고 효율적이며, 교육 목표에 알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전공 교과목 개설 시 요구하는 시수는 대부분 주당 2시간이었다. 선행연구 의과대학 법의학 시수는 주당 1시간이 대부분이며, 일부 대학에서는 2시간을 시행하고 있다<sup>[9]</sup>. 전국 대학 방사선학과에서 대구보건대학교가 유일하게 주당 2시간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법의학 단독과목으로는 주당 1시간이 적합해 보이며, 방사선사에게 필요한 법의학방사선학이 포함되면 주당 2시간 강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 확대와 법의학 및 법의학방사선학의 전문적 지식과 방사선학 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의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재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면 양질의 방사선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고, 방사선사 업무확대 및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CONCLUSION

본 연구는 국내 방사선학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및 요구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전문적 방사선사를 양성에 도움이 되고자 수행하였다.

업무 범위 확대와 전문적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의과대학과 및 간호대학에서는 업무 범위 확대와 전문적 지식을 갖추기 위해 오래전부터 법의학 및 법의학간호학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의료과학적 자료를 제공하는 방사선학과는 아직 교과목 개설 및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법의학 분야는 다양하며, 방사선학과에 임상 적용을 위한 새로운 교육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방사선학과는 전통적인 교과목들만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분화 및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 방사선학과는 전문직업인 양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임상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의료계의 요구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전문적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도 재분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로 재학생들의 법의학과 관련된 요구도를 알 수 있었고,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에 법의학과 관련된 교과목 삽입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로 법의학 및 방사선학 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Reference

- [1] K. Y. Kim, "Changes in the Prospect of Modern Medicine and Legal Responsibility", *Bio-Medical and Law*, Vol. 25, pp. 5-42, 2021, <https://doi.org/10.22397/bml.2021.25.5>
- [2] K. B. Brothers, M. A. Rothstein,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incorporating personalized medicine into healthcare", *Personalized Medicine*, Vol. 12, No. 1, pp. 43-51, 2015. <http://dx.doi.org/10.2217/pme.14.65>
- [3] K. Y. Moon, S. H. Hong, U. R. Cho, "A theoretical study of the impact of development on human rights and peace",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22, No. 1, pp. 101-127, 2021. <https://doi.org/10.14363/kaps.2021.22.1.101>
- [4] D. K. Park, S. J. Cho, "Improvement of the Current Inquest System in Terms of Human Rights", *Crisisnomy*, Vol. 8, No. 4, pp. 87-102, 2012.
- [5] G. Y. Huh, "Undergraduate Education in Forensic Medicine in Germany, Japan, and Korea",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Vol. 46, No. 4, pp. 95-101, 2022. <https://doi.org/10.21032/jhis.2019.44.1.73>
- [6] D. Y. Kang, H. Y. Knag, J. S. Kwak, *A textbook of Legal Medicine*, Jungmunkag Co, 2009.
- [7] M. J. Thali, M. D. Viner, B. G. Brogdon, *Brogdon's forensic radiology*, 2nd Edition, CRC Press, 2011.
- [8] Membership in the General Forensics Section, *America Academy of Forensic Sciences*, 1948. From URL; <https://www.aafs.org/membership/general>
- [9] G. Y. Huh, "Undergraduate Education in Forensic Medicine in Germany",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Vol. 46, No. 4, pp. 95-101, 2022. <http://dx.doi.org/10.7580/kjlm.2022.46.4.95>
- [10] M. H. Han, N. J. Lee, K. H. Jeong,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forensic nursing education in south Korea: A focus group interview study", *Journal of Science Criminal Investigation*, Vol. 16, No. 4, pp. 276-294, 2022. <http://dx.doi.org/10.20297/jsci.2022.16.4.276>
- [11] J. H. Choi, C. K. Kim, W. C. Kim, S. C. Kim, "Study on development in professional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29, No. 3, pp. 197-210, 2006.
- [12] Y. S. Yoo, K. S. Cha, O. H. Cho, S. K. Lee, "Emergency Department Nurses' Recognition of and Educational Needs for Forensics Nursing Educatio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Korean J Adult Nurs)*, Vol. 24, No. 5, pp. 499-508, 2012. <http://dx.doi.org/10.7475/kjan.2012.24.5.499>
- [13] K. M. Yang, N. E. Chung, W. T. Lee, et al., "Practicality of modern high-tech medical imaging devices to forensic medicine and scientific crime investigation",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Vol. 31, No. 1, pp. 62-71, 2007.
- [14] Z. Obertová, A. Leipner, C. Messina, A. Vanzulli, B. Fliss, C. Cattaneo, L. M. Sconfienza,, "Postmortem imaging of perimortem skeletal trauma",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Vol. 302, 2019. <http://dx.doi.org/10.1016/j.forsciint.2019.109921>
- [15] Myke J Kudlas, Teresa G Odle, Lisa Kisner, "The State of Forensic Radiograph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Society of Radiologic Technologists*, pp. 1-37, 2010.

# 방사선학과 전공 학생들의 법의학에 대한 인식과 교육 요구도 조사

정경환<sup>1</sup>, 한상현<sup>2,\*</sup>

<sup>1</sup>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

<sup>2</sup>대원대학교 방사선학과

## 요 약

국내 경제 및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 수준은 높아졌다. 그에 따라 생명의 질 향상을 원한다. 즉,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의학계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도움을 준다. 인권을 수호하는 사회의학은 법의학이다. 법의학은 법의방사선학 영상으로 사망자 식별 및 원인을 분석한다. 법의방사선학은 방사선사가 의료영상을 획득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사선사는 법의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최근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에서는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에서는 법의학, 법의간호학 등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방사선학과는 법의학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단 하나뿐이다. 향후 방사선사 및 방사선학과 발전과 모색을 위해서는 법의학 교육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방사선학과 학부 및 대학원에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과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방사선학과 재학생들의 법의학 인식도는 2.977점으로 나타났으나, 방사선사가 법의학 교육 필요성은 3.75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재학생들의 법의학 교과목 요구도는 84.1%로 높게 나타나 대다수가 개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방사선학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들의 법의학 관련 교과목 요구도를 알 수 있었으며,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의학 및 방사선학 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중심단어: 법의학, 방사선학 교육, 법의방사선학, 방사선사, 방사선학과 학생

## 연구자 정보 이력

	성명	소속	직위
(제1저자)	정경환	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	겸임교수
(교신저자)	한상현	대원대학교 방사선학과	교수